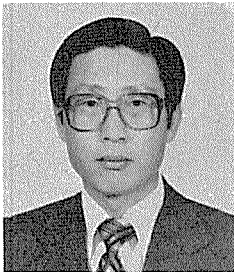


國際原油市場變化와 에너지政策의 對應方案



許 南 薰

〈動力資源部·資源政策室長〉

I. 國際原油市場動向과 展望

1. 最近의 原油市場動向

83年 3月 14日 英國 런던에서 開催되었던 第 67次 OPEC總회는 基準油價를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배럴당 5달러 引下할 것과 產油量도 하루 100萬배럴을 減縮할 것을 決定하였다.

이에 따라 最近 OPEC의 產油量은 하루 14~15 百萬배럴 水準으로 維持되고 있으며, 各國은 自國產 原油價格을 배럴당 2~5 달러 정도 引下하였다.

특히 OPEC가 油價引下에 合意하는 경우, 北海產 原油價를 大幅引下하겠다고 公言하던 英國이 배럴당 0.5~0.75달러 정도로 小幅 引下하는데 그쳤으며, 이란도 OPEC의 決定에 同調하여 基準油價와의 差를 배럴당 1달러 水準으로 縮小하였다.

한편 公式價와 큰 價格差를 보이던 現物市場의 原油價도 各國의 公式價格 引下에 따라 公式價水準으로 接近하였으며, 지난 4月 22日에는 이란產 重質油의 現物價格이 公式價를 上廻하는 異變을 보이기도 했다.

2. 原油價格 展望

가. 短期展望

83年末까지는 現在의 價格水準이 維持될 것이라는 展望이 支配의이나, 쿠웨이트 石油相은 年末경에 배럴당 1달러정도 引上될 것이라는 見解를 갖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OPEC諸國이 減產에 따른 財政壓迫을 勘耐하기가 困難하여 더욱 引下될 것으로 보는 見解도 있다.

〈參考〉

〔原油價 5달러 引下로 OPEC 各國의 財政收入은 年間 約 250億달러 정도 減少展望〕

〈表-1〉 DOE의 自由世界 石油需要展望 (83. 4)

(單位: 百萬B/D)

	1/4分期	2/4分期	3/4分期	4/4分期	計
自由世界需要	46.6	43.7	44.0	46.7	45.4
OPEC產油國	17.5	19.0	20.1	20.8	19.6

나. 長期展望

(1) 一般動向 및 過去推移

過去 두차례의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特殊商品化되었던 石油도 根本的으로는 一般商品과 같이, 價格이 需要에 의하여 決定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生産地域의 偏重 및 中東地域의 不安要因 尚存 등의 特殊性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年度別 推移를 살펴보면, 1967年度 石油需要는 하루 2,400만 배럴이던 것이 73년까지 每年 5.5%씩 增加되어 73년에는 하루 4,580만 배럴로 需要가 急増되고, 價格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달러까지 暴騰하였으며, 79년에는 5,160만 배럴까지 계속 늘어났다. 이는 美國의 石油輸入量의 增加와 1次 石油波動후 3~4年間 安定된 價格에 따라 需要가 每年 1.5% 정도 增加하였기 때문이다.

第2次 石油波動時에는 이같은 需要增加와 더불어 이란政變과 이란-이라크戰爭으로 인한 供給物量 減少와 主要消費國 및 메이저의 備蓄增大로 인한 需要增加가 原油價를 배럴당 34달러까지 上昇시켰다.

이와같은 高油價는 石油消費量의 減退와 世界的인 景氣沈滯를 가져왔고, 인플레이와 失業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招來하였다.

이에 따라 OPEC의 產油量은 하루 3,100만 배럴에서 82年 上半期 2,250만 배럴로 줄어들었으며, 83年 4月에는 하루 1,400~1,500만 배럴까지 떨어졌다.

한편 消費國들은 에너지消費節約과 產業構造를 改編하여 OECD國家들의 73~81年間 GNP 單位당 에너지 使用量이 27%나 減少되었다.

그리고 73년에 20億 배럴에 不過하던 備蓄量이 81년에는 50億 배럴까지 增大되었으나, 81년부터는 美國의 高金利 政策으로 메이저들이 備蓄量을 하루 300만 배럴씩 放出하였던 結果, 이것은 OPEC의 產油量 減縮의 壓力으로 作用하였다.

(2) 油價展望에 관한 3가지 見解

長期的인 油價展望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 見解가 있다.

- ① OPEC의 增産에 따라 油價下落
- ② GCC 減産으로 油價 上昇
- ③ 產油國 消費國間, 產油國 相互間協調로 石油市場安定

첫째, OPEC의 增産으로 油價가 下落될 것이라는 見解를 살펴보면,

OPEC의 石油收入은 60年代 117억 달러에서 79년 2,792億 달러까지 增加했다가 82년에 2,018億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今年에는 1,693億 달러 水準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表-2〉 OPEC의 石油收入

(單位: 億달러)

60年代	73	79	81	82	83전망
117	339	2,792	2,370	2,018	1,693

OPEC國家들이 81年의 石油收入水準을 維持코자 할 경우, 現行 原油價 水準인 배럴당 29달러에서는 하루 2,670만 배럴을 生産해야 할 것이나, 現在의 產油量이 1,600만 배럴에 不過해 636億 달러 정도의 財政赤字가 不可避한 實情이다.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外貨收入의 90% 이상을 原油收入으로 充當하고 있음에도 하루 80만 배럴 (79년에는 240만 배럴) 정도만을 生産하고 있어 財政壓迫을 크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OPEC 各國은 增産이 不可避하고 油價引下 競争이 再演될 것이라는 展望이다.

이러한 見解와 같이 油價가 下落하여 배럴당 25달러 以下로 되는 경우 石油消費國들은 經濟成長이 加速化되고 消費量이 急増하여 81年 水準인 하루 4,500만 배럴을 超過할 것으로 예상되나, 代替에너지 開發事業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OPEC의 地位가 다시 回復되어 第3次 石油波動을 招來할 可能性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GCC 產油國들의 減産으로 油價가 上昇될 것이라는 見解를 보면,

사우디, 쿠웨이트, U. A. E. 3個國의 生産 쿼타량인 하루 700만 배럴을 50%인 350만 배럴까지 減産할 경우 世界需要量의 10% 程度가 不足하게 되어 油價가 上昇하게 될 것이라는 展望이다.

또한 消費國들의 外貨支出이 增加되고 景氣는 다시 沈滯될 것이나 代替에너지 開發努力이 活潑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GCC 國家들이 石油收入 減少를 補充하기 위해 海外資産을 回收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國際金融 危機가 招來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油價가 安定될 것이라는 展望은 消費國들의 消費抑制과 代替에너지 開發政策이 持續되고 產油國들의 財政需要가 充足된다는 것이 前提가 되어야 한다.

1990年의 世界石油需要를 하루 4,500만 배럴로 볼 때 이는 73~81年의 水準과 비슷해지므로 배럴당 25달러 정도의 價格水準이 維持될 것으로 보고 있

으며, 2,000년의 需要가 하루 5,800萬배럴 정도로 安定成長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배럴當 35달러 水準 維持가 可能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最近 美國의 에너지省(DOE)은 85년에 배럴當 25 달러 水準이 維持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으며, I BRD는 83년까지는 現水準을 維持하다가 84年初부터는 점차 上昇될 것으로 予想하고 있다.

(3) 各國의 原油價下落에 따른 油價調整

우리는 지난 4月 19日 國內 油價調整時 原油價 引下分の 30%만 價格引下에 反映하고 나머지 70%는 關稅 및 基金으로 吸收하였는 바, 다른 나라는 原油價 引下에 어떻게 対処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台灣은 3月 17日 字로 油價를 調整하면서 50%程度를 國營石油會社(C. P. C)의 收益增大 및 稅收增大(關稅 1.25%→2.5%)를 위해 留保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필리핀은 國內油價를 調整하지 않기로 決定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83年 1~2月中 下落分中 25%만 國內油價에 反映하고, 3月 14日以後 下落分은 모두를 財政으로 吸收하였고, 프랑스도 石油製品稅를 新設, 油價를 事實上 凍結하였다.

美國도 4月 1日부터 揮發油에 關한 당 5센트의 聯邦稅를 賦課하였으며, 이에 따라 年間 55億달러 정도가 徵收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II. 原油市場變化에 따른 檢討 課題

以上에서 最近 國際 石油市場의 動向과 向後 展望도 살펴 보았는 바, 이와 같은 情勢變化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政策을 推進해 나감에 있어 檢討하여야 할 課題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1. 石油代替에너지開發體制를 포함한 長期 에너지 需給計劃
2. 에너지 消費節約施策
3. 原油導入政策

4. 油價管理 制度

5. 國內 石炭産業의 育成施策 등에 관한 現在政策을 原油市場이 變化된 現時點에서 다시 한번 總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長期에너지 政策의 基本方向

不安定한 世界에너지 情勢變化에 對應하여 우리 經濟의 安定的 成長을 持續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政策의 長期方向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1. 에너지消費節約 및 利用合理化의 持續的 推進

一時的으로 國際에너지 事情이 好轉되었다고 우리가 에너지消費節約 및 利用合理化 努力을 게을리 하는 것은 다시 에너지 危機를 自招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2. 石油依存度の 減縮

아직도 外國에 比하여 높은 石油依存度를 縮小하여 에너지源의 多元化를 期해야 할 것이다. 이는 不安定한 國際 石油情勢에 대한 우리 나라의 対応能力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의 課題다.

3. 에너지 資源의 長期安定 供給 基盤 構築

石油를 비롯한 에너지 資源을 長期 安定的으로 供給받을 수 있는 基盤構築을 위하여 單純輸入을 止揚하고 開發輸入을 擴大하여야 할 것이며, 資源 保有國과의 關係를 強化하는 한편 導入先의 多邊化 政策도 持續적으로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國內資源의 積極 開發

國內 賦存資源을 積極적으로 開發活用하여 에너지 輸入依存度를 最大限 抑制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石油代替에너지 開發計劃

1. 油價下落과 代替에너지의 經濟分析

가. 産業用 보일러의 經濟性 比較 (100l/H 規模, 稼動率 68%, 割引率 15% 에너지 節約施設 代替資金融資條件)

B-C油와 石炭을 使用하는 경우, 相對費用을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相對費用		
B-C油價	北美産石炭	濠洲産石炭
\$ 41.50	0.75	0.66
38.50	0.80	0.70
28.61	1.00	0.89
25.00	1.11	0.98
24.36	1.13	1.00
20.00	1.30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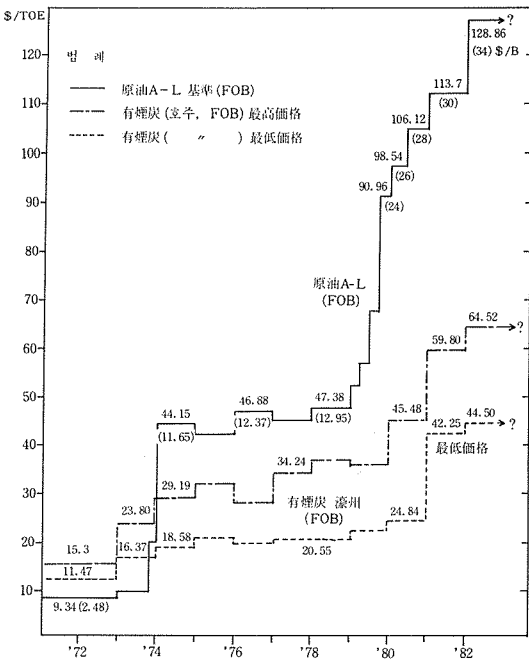
결국 相對費用만을 고려할 때 北美産 石炭을 使用하는 경우는 B-C油 價格이 배럴당 28.61달러以上이 되면 經濟性이 있으며, 濠洲産 石炭을 使用하는 경우는 B-C油 價格이 배럴당 24.36달러以上이 되면 經濟性이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나. 發電原價의 經濟性 比較

83年中 우리 나라 發電原價를 에너지源別로 比較해 보면, B-C油 發電은 52.32원/KWH, 水力은 18.70원/KWH, 有煙炭 48.76, 無煙炭 30.97, 原子力은 28.48원/KWH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在의 石油價格下에서는 他에너지源이 모두 經濟性을 가지게 되나, 原油價가 16.6% 引下되는 경우 無煙炭이 發電燃料로서의 經濟性을 잃게 되며, 52.1%가 引下되는 경우, 有煙炭도 經濟性을 상실케 된다. 더 나아가서 58.3%까지 引下되어 原油價가 第1次 石油波動時의 價格水準인 배럴당 12.09달러까지 떨어지는 경우에는 原子力마저도 經濟性이 없게 되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表-3) 有煙炭 및 原油價格의 變化推移



(表-4) 油價引下와 發電原價變動推移

	(單位: 원/KWH)			
	B-C油	無煙炭	有煙炭	原子力
29 \$/B	52.32	48.76	30.97	28.48
16.6%引下 (24.19 \$/B)	45.53	45.53	30.97	28.48
52.1%引下 (13.89 \$/B)	30.97	38.62	30.97	28.48
58.3%引下 (12.09 \$/B)	28.48	37.41	30.97	28.48

2. 電源開發 計劃

가. 電源開發計劃 概要

現在 政府가 樹立하여 推進中에 있는 長期電源開發計劃을 보면, (表-5)와 같다.

나. 發電所 建設 및 改造後의 發電源別 構成

앞서 본 바와 같은 電源開發計劃이 完工된 後 發電源別 構成比를 보면, 石油發電比重이 大幅 縮小되는 反面, 原子力과 石炭發電比重이 크게 增加하게 된다.

다. 電源開發計劃의 再檢討

現在 政府는 앞서 說明한 電源開發計劃의 調整作業을 推進中에 있다. 이는 最近의 油價引下에 따른 變動에 따라 連動的으로 것이 아니고, 電力需要의 檢討調整하는 作業의 一環이다.

특히 多目的댐의 早期建設에 따른 水力發電量의 變更 및 原子力發電所 建設着工지연에 따른 對策 등을 再檢討하는 것이며, 基本的인 方向에는 變化가 없다.

3. 産業用油類 代替計劃

이미 시멘트業체는 代替를 完了하여 82年度 有煙炭 消費量이 247萬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表-6〉 發電源別 構成比變化(施設容量基準)

(單位:千kw)

源別	82		83		86		91	
	實績	構成比	實績	構成比	實績	構成比	實績	構成比
原子力	1,266	12.3%	1,916	14.6%	4,766	27.1%	9,416	39.7%
有煙炭	—	—	1,060	8.1	3,180	18.1	3,680	15.5
石油	186	69.7	7,187	54.8	4,623	26.2	3,963	16.7
L P G	—	—	700	5.3	1,900	10.8	2,550	10.7
一般水力	802	7.8	802	6.1	1,285	7.3	1,668	7.0
揚水	400	3.9	400	3.1	1,000	5.7	1,600	6.8
無煙炭(混燒)	650	6.3	1,050	8.0	850	4.8	850	3.6
計	10,304	100	13,115	100	17,604	100	23,727	100

〈表-5〉 電源開發計劃

區分		發電所名	容量(千kw)	工期	
新 規 建 設	水力 建設中(2基 480千kw) 計劃(6基 383千kw)	忠州	400	78. 6 ~ 85. 4	
		陝川	80	82. 4 ~ 86. 12	
		住岩	20	83. ~ 87.	
		臨溪	160	85. ~ 91.	
		臨河	50	"	
		咸陽	13	"	
		洪川	90	"	
		明川	50	"	
	揚水	建設中(2基 600千kw) 計劃(")	三浪津	600	79. 10 ~ 85. 12
		茂朱	600	86. 1 ~ 90. 12	
原子力	建設中(7基 6,350千kw) 計劃(2基 1,800千kw)	# 2 (古里)	650	71. 5 ~ 83. 6	
		# 5, 6 (")	950 × 2	78. 1 ~ 85. 9	
		# 7, 8 (靈光)	950 × 2	80. 3 ~ 87. 3	
		# 9, 10 (蔚珍)	950 × 2	81. 1 ~ 89. 3	
		# 11, 12 (靈光)	900 × 2	84. 2 ~ 91. 9	
有煙炭	建設中(4基 2,120千kw) 計劃(1基 500千kw)	三千浦火力# 1, 2	560 × 2	78. 10 ~ 84. 2	
		高亭火力# 1, 2	500 × 2	79. 12 ~ 84. 12	
		石炭# 5	500	86. 10 ~ 91. 3	
無煙炭	建設中(2基 400千kw)	西海火力# 1, 2	200 × 2	78. 10 ~ 83. 9	
改 造	LNG로 改造 (8基 2,550kw)	平沢火力# 1 ~ 4	350 × 4	82. 1 ~ 86. 3	
		仁川火力# 1, 2 " # 3, 4	250 × 2 325 × 2	84. 9 ~ 86. 10 86. 7 ~ 88. 10	
有煙炭으로 改造 (4基 1,060千kw)	湖南火力# 1, 2	280 × 2	82. 1 ~ 84. 10		
	麗水火力# 1, 2	200,300	83. 9 ~ 86. 5		

146萬萬달러의 에너지 輸入費用을 節減한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다만 지난번 油價引下가 有煙炭 使用에 다소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바 投資回收期間이 2~4個月 延長되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앞으로도 食品 섬유 製紙와 같이 油類使用量이 많은 大規模業체를 中心으로 重点 推進할 것이며, Coal Center와 石炭專用부두 建設이 完了되는 時에 맞추어 積極 推進할 計劃이다.

4. 가스普及基盤 扩充

가. LNG 導入

現在 인도네시아로부터 導入을 推進中인 LNG를 86年末부터는 年間 200萬톤을 輸入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平沢과 仁川火力의 LNG 發電所의 改造를 推進中에 있으며, 都市가스 配管網建設을 위한 細部設計用役을 依頼中에 있다.

나. LPG 供給拡大

82年度부터 그 使用量이 크게 增加된 LPG도 安定的 確保를 위하여 努力할 것이다.

(表-7) LPG 供給量(천톤)

82	83	84	85	86
630	820	970	1,130	1,300

앞으로 LPG는 自家消費나 販賣実績이 있는 者로서 長期供給契約을 締結한 者에 한하여 導入을 許容할 方針이며, 價格管理制度도 改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V. 에너지消費節約 및 利用의 合理化

1. 油價下落과 에너지消費節約施策 推進

最近의 油價下落이 에너지消費節約施策의 推進에 影響이 미칠까 우려되고 있다.

우선 國民의 에너지消費節約意識이 已完되었으며 에너지節約弘報도 積極性이 減退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油價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에너지節約施設資金의 放出이 鈍化될 可能性도 있다.

2. 推進方向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에너지節約施策을 보다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는 國民들의 에너지節約意識을 더욱 高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施策을 現實에 맞게 再點檢 補完하여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VI. 原油導入政策

1. 基本課題 및 政策의 變遷

原油導入政策의 基本命題는 所要原油를 適期安定的으로 確保하는 데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第2次 石油波動以前에는 所要原油全量을 메이저를 통해 供給받았으나, 第2次 石油波動으로 메이저의 物量供給 中斷事態가 發生하자 政府次元의 原油導入交渉이 開始되었고, 民間商社도 原油導入交渉에 參與하게 되었다.

이러한 努力의 結果로 사우디, 쿠웨이트로부터 G-G 베이스 原油가 導入되기 始作했으며, 綜合貿易商社들도 原油를 導入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原油市場이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으로의 轉換을 계기로 이루어진 面도 부인할 수 없겠으나 最近의 市場動向과 앞으로의 展望을 볼 때 政府는 實需要精油社들이 直接 原油를 導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判斷에서 精油社들의 原油確保能力을 培養하는 데 힘쓰고 있다.

2. 現物市場의 機能拡大

第2次 石油波動以前까지 現物市場은 季節的 需給不均衡이나 油種間的 需給不均衡을 調節하는 役割만을 担当하였으나, 第2次 石油波動을 契機로 産油國, 消費國들이 現物市場을 選好하게 됨에 따

라 그 機能이 매우 커지게 되었으며, 去來物量도 79年以前에는 世界原油去來量의 3~5%에 不過하던 것이 82年度에는 10%정도까지 增加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OPEC의 整理機能이 強化됨에 따라 去來物量의 增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약 現物市場去來物量의 增加時에는 OPEC의 쿼타制 自体가 붕괴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3. 基本方向

앞으로 原油導入政策을 推進함에 있어서는

첫째, 長期契約爲主로 安定供給基盤을 確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安定供給基盤이 沮害되지 않는 範圍內에서는 現物市場의 싼 原油도 活用하고, 精油社들의 自体確保能力을 培養함으로써 物量不足時 自体所要 原油를 責任確保할 수 있도록 誘導해 나갈 計劃이다.

4. 長期安定確保對策

以上과 같은 方向에서 長期安定的으로 原油를 確保하기 위해서

우선 精油社들의 油田開發參與를 誘導해 나가도록 하고,

精油社들의 備蓄水準을 提高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도록 할 것이며, 原油導入先의 多邊化도 持續적으로 推進해 나가도록 하겠다.

VII. 油價管理制度

1. 政府告示價格制度의 問題點

現在는 國內石油製品價格을 政府가 決定告示하고 있는 바, 이같은 政府統制價格制度의 問題點을 檢討해 보면,

첫째, 政府가 油價를 統制하고 있으므로 因한 國民의 非難을 補償할 程度의 效果를 거두었느냐고 한다면 國內油價는 時差가 있었을 뿐 尙상 適正水準까지 引上되고 말았다는 點에서 否定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油價를 관리함에 있어서 該간의 與件이 많이 變

化되었다.

經濟規模의 擴大에 따라 民間主導의 經濟運營體制로의 轉換이 不可避하게 되었고 輸出入 自由化 擴大 등으로 開放經濟體制로 轉換되고 있으며, 國際石油事情도 急激하게 變化되고 있다.

또한 統制價格制度는 精油產業의 對政府 依存度를 深化시킬 뿐만 아니라, 對外適應力을 弱화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여 石油의 長期安定的 需給基盤을 沮害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2. 油價管理制度의 基本方向

이상과 같은 政府統制價格制度의 問題點을 解消하여 合理的인 價格管理를 圖謀하기 위해서는 國內油價를 自律化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現在의 直接規制方式을 間接規制方式으로 轉換한다는 뜻이다.

油價에 市場競爭原理을 導入하고, 原油를 비롯한 石油類의 輸出入을 自由化하며 政府는 石油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한 統制·調整機能만을 留保하자는 것이다.

3. 油價自律化를 위한 前提條件

그러나 이와 같은 油價自律化를 實現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前提條件이 解決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油種間 價格構造가 國際水準에 接近되어야 할 것이며, 流通構造가 改編되어야 하며, 또한 原油가 長期安定的으로 確保되고 輸入의 自由化도 並行되어야 할 것이며, 製品輸出入 自由化에 對備하여 關稅 등을 비롯한 制度改善이 앞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推進計劃

完全한 油價自律化는 이상과 같은 前提條件이 解決되어야만 可能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自律化를 위한 制度改善은 長期間이 所要되므로 制度改善과 더불어 部分的 自律化를 推進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지난 83年 2月 6日 油價調整時 이미 國民生活와 直接的인 關聯이 적은 제트油와 溶劑의 自律化를 施行하였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事項을 고려하여 自律化對象油種을 擴大해 나갈 方針이 다.

- 1 段階: 제트油, 溶劑
- 2 段階: ①案 휘발유, LPG
②案 B-C油, 아스팔트
③案 휘발유, LPG, 나프타

〈表-9〉 OPEC의 精製能力擴大 現況

(單位: 千B/D)

	80年	增加率			84年 推定
		81~82	83	84	
사우디	1,178	290	325	500	2,293
쿠웨이트	594	106	-	-	700
其他	4,477	1,255	110	508	6,349
計	6,249	1,651	435	1,008	9,342

VIII. 精油産業의 構造改編

1. 改編의 必要性

가. 에너지節約·石油依存度 減縮으로 石油需要의 減少

아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經濟의 石油依存度는 政府의 에너지節約 및 石油依存度 減縮政策의 持續의 推進으로 점차 減少될 展望으로 있다.

〈表-8〉 中長期 에너지源別, 構成比 (單位: %)

年度 区分	82	86	91	2001
石油	57.8	46.2	43	32.2
無煙炭	21.6	18.8	13.4	7.4
有煙炭	12.2	19.7	23.0	31.2
原子力	2.0	10.5	13.1	21.0
水力·薪炭等	6.4	4.8	4.8	4.1
計	100	100	100	100

나. 油價自律化, 輸出入 自由化 推進

앞서 說明한 바와 같이, 油價自律化 및 輸出入 自由化가 實現되는 경우, 實需要者들에 의한 製品輸入의 擴大가 예상되며, 이것이 精油産業에도 많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다. 國際石油事情의 變化

最近 들어 産油國들의 原油輸送 및 精製部門의 進出이 增大되고 있어 消費國의 精油産業에 적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2. 基本方向

앞서 說明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要因에 의해 精油産業은 점차 위축되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러한 어려움을 克服해 나가기 위하여는 精油産業의 綜合에너지産業으로의 育成이 積極的으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수직적으로는 油田開發, 輸送 등의 分野에 進出하여야 할 것이며, 水平的으로는 石炭 등 他에너지資源開發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IX. 國內石炭産業의 育成

1. 油價引下가 石炭産業에 미치는 影響

油價引下는 石炭의 相對的인 價格競爭力을 弱화시켜 石炭需要의 減少를 招來할 것이며, 原油價가 계속 安定勢를 維持하는 경우에도 國內石炭은 每年 深部化, 賃金引上 등에 의한 價格引上이 不可避하여 價格競爭力을 弱화시킬 것이다.

또한 國民들의 所得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使用이 便利한 에너지를 選好하게 됨에 따라 石炭需要는 계속 減少될 것으로 예상된다.

2. 施策方向

그러나 石炭은 國內 唯一 最大의 賦存에너지資源으로서 積極的으로 開發·活用하여 에너지源의 輸入依存度 增加를 最大한 抑制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나라의 住宅構造로 인한 계속적인 石炭需要도 充足시켜야 할 것이다.

3. 推進方案

国内石炭産業을 育成하기 위하여는 炭鉱의 機械化 및 鉱区의 大單位化로 生産性的 向上에 힘쓰는 한편, 石炭使用技術의 開發研究로 炭質向上과 煙炭使用의 便宜度를 增進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81	82	83	86	91
輸入依存度(%)	75.2	74.5	74.9	79.7	83.8
石油依存度(%)	58.4	57.8	54.7	46.2	43.0

X. 結 語

1. 우리 나라의 에너지環境

우리 나라가 處해 있는 에너지環境을 살펴보면, 에너지의 輸入依存度가 점차 增加되어 가고 있으며, 石油依存度도 아직 높은 水準에 머물러 있다.

또한 GNP單位당 에너지投入量도 外國에 比하여 매우 높은 實情으로 아직도 에너지 節約 및 利用合理化 推進이 未洽한 水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石炭産業의 育成과 油價體制

이러한 點을 고려하고 石油代替 및 에너지節約을 계속 促進하며, 国内石炭産業을 育成함으로써 所要 에너지의 安定供給을 期하도록 하기 위하여 國際競爭力이 沮害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適正水準의 油價體制維持가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韓國	美國	英國	日本	西獨
에너지投入量 (TOE/GDP, 81現在)	1.45 (100)	0.95 (66)	0.78 (54)	0.54 (37)	0.52 (36)

□ 産油國動向 □

現行油價 85년까지 維持될 것

OPEC(石油輸出國機構)의 4인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OPEC가 오는 85년까지 油價를 現행 배럴당 29달러의 公示價로 凍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OPEC 4인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인 마나·사에드·알·오타이바 아랍에미레이트石油相은 회담이 끝난 후 『지난 3월 런던 OPEC石油相會談에서 결정된 油價와 生産량이 現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4人委의 목표는 油價를 최소한 85년말까지 現행가격으로 凍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오타이바 위원장 외에 움베르토·칼데론·베르티 베네수엘라 石油相, 벨카셈·나비 알제리 石油相, 수브레토 인도네시아 石油相등 4인시장감시위원회 멤버와 마르크·엔구에마 OPEC 사무총장등이 참석했다.

오타이바 위원장과 칼데론 베네수엘라 石油相은 OPEC 석유생산량이 런던회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하루 1천7백50만배럴의 상한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現제 生産량은 이보다 조금 못미친 1천7백만배럴이라고 밝혔다.

오타이바위원장은 4人監視委員會가 런던회의 이후 OPEC 13개 위원국 가운데 생산쿼터와 公示價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現상황하에서 어느 會員國도 油價를 인하하거나 生産량을 늘림으로써 이득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데론石油相은 세계석유시장이 2개월전보다 안정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現物市場가격은 여전히 OPEC公示價보다 다소 밀리며, 이같은 불균형한 가격구조가 수개월 지속될 것이라고 인정했다.